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기획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근본에서 살게끔 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금왕지원 심천회 회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올리기 전에 큰스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주인공 자리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윤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가에서는 죽고 난 뒤에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천상, 인간, 아귀 등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죽고 나면 육도윤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육도윤회라는 것도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섯 가지 이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돌이나 나무, 방석 그런 무생물로도 윤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큰스님께 여쭙습니다.

**큰스님** 내가 이 말을 듣고 싶군요. 돌이 이렇게 썼는데 말입니다. 바람에 씻기고 스쳐서 그냥 반드르르하게 쪽이 닳아 나갔어요. 그런 걸 볼 때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요?

**질문자(1남)** 바뀌집니다.

**큰스님** 그렇죠? 그런데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노릇 하다가 바로 자식 노릇 할 때가 윤회예요. 자식이 남편 노릇 하다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가 바로 윤회라니까. 윤회가 별다른 거 아니에요. 살면서 윤회하는 것이, 죽어서도 살아서도 그냥 윤회예요. 그러니까 전부 윤회가 되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어나서 죽어지고, 죽어졌다가 늙어지고 하는 것도 바로 윤회죠. 또 우리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도망가고 또 딴 말을 해야 하나 그것도 윤회고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은 없다고 하는 거죠. 너무 바뀌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불을 데가 없다. 반은 있고 반은 없어야 윤회라고 할 수 있지 윤회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돌아가는데 무슨 윤회가 거기 붙습니까? 지구가 돌아갈 때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그럼니까? 그런다면 윤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윤회도 없다 이런 문제예요. 이것을 고차원적으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것이 부처지 있는 것이 부처가 아니다.

**질문자(1남)** 그러면 육도윤회라는 게 가르침도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큰스님** 그거야 학술적으로 꼭 있어야 배우는 거 같으니까 경전에도 있고 다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육도윤회니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다 있

는 거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것에 조금도 걸려서는 안 된다 얘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걸리니까. 또, 걸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육도윤회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도 모두 읽어 봐서, 내가 집착하게 한번 거기가 놓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것도 움쭉거리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만나게 하는 것도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모두가 고뇌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나를 알고 나서야 그것이 다 해당되죠. 가르치는 데 해당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 가지고 그 천차만별의 문제를 다 여러분이 해라 이거죠. 하지 마라, 해라가 없이 그대로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행선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좌선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일어날 땐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죠? 그러니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선(禪)은 끊어지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썼는지 않았는지, 일을 하든지 누워 잠을 자든지, 이것을 입선·좌선·행선·와선이라고 말할 하는데,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모든 걸 돌이켜, 그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그냥 참선이 돼 버릴 때 바로 그것도 이름 해서 묵선이라고 할 수 있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올렸습니다. 요즘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적어도 1, 2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해야 된다고 얘길 하는데 저희 한마음선원 신도분들께서는 그 국가적 위기조차도 공부의 재료, 또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볼자, 또는 국한시키면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나는 말을 만들어서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것도 걱정할 게 없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태를 간다, 5년을 간다, 이렇게 해서 빚을 어떻게 갚나 이러지마는...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를 알게 하고 깨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두 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마음이 착하고 제대로 자기와 더불어 같이 위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때 동안에 될 거 1년에 되고, 1년에 될 거 석달에 되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면 걱정을 할 게 없다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를 어떻게 걱정을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온 그 관습에 의해서 모두 집착을 갖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까짓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나가서 안 들

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래, 그걸 가르쳐서 애길 해 주면, 사실 출창 애길 하죠. 그러면 얼마 뒤에 "들어왔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해요. 그때 또 한마디 해 줘요. "이거 봐! 들어왔다고 마음 딱 놓지 말고, 마음애다가 관하고 부드럽게 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해 줘.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남이 나를 잘해 줄 거만 생각하지 말고

냥, 그냥 죽으러 가고 있는데 뭘 더 죽겠다 뭘 죽겠다 하느냐구. 허허하... (대중 웃음)

**질문자(2남)** 제가 선원이 나오면서, 법문 듣고 환희심이 생겨서 처음에는 법문만 기다리고 법회 날짜만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쪽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희심은 더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닦치니까 이제 환희심은 사라지고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쪽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딱 쉬어지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쪽 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간절해지질 않아서 '간절해지는 것도 당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계속 관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간절해지긴 했는데,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려면 오직 주인공을, 내 주인공을 딱 믿고 가는 '오직'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쉬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어려운 일 자체가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공부를 하면 종합적인 공부를 몰아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을 녹여서 참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근본이 드러나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오십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늦는 거 같고, 그래서 먼저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녹여 나갈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뭐라고 그랬죠? (대중 웃음)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자(2남)** 저희가 계속 관을 하고 자기 입장을 소멸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기 근본이 드러나서 자기를 발견하겠지만, 그 전에 부족한 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우선 자기 근본을 먼저 발견을 하고...

**큰스님** 그렇게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가 붙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걸어들 때 생각했던 거는 그게 아니거든.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겠다도 아니고, 이것을 안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믿고, 믿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살게끔 하는 거. 내 마음은 거기에 돌이키게 (양 손바닥을 서로 붙여 보이며)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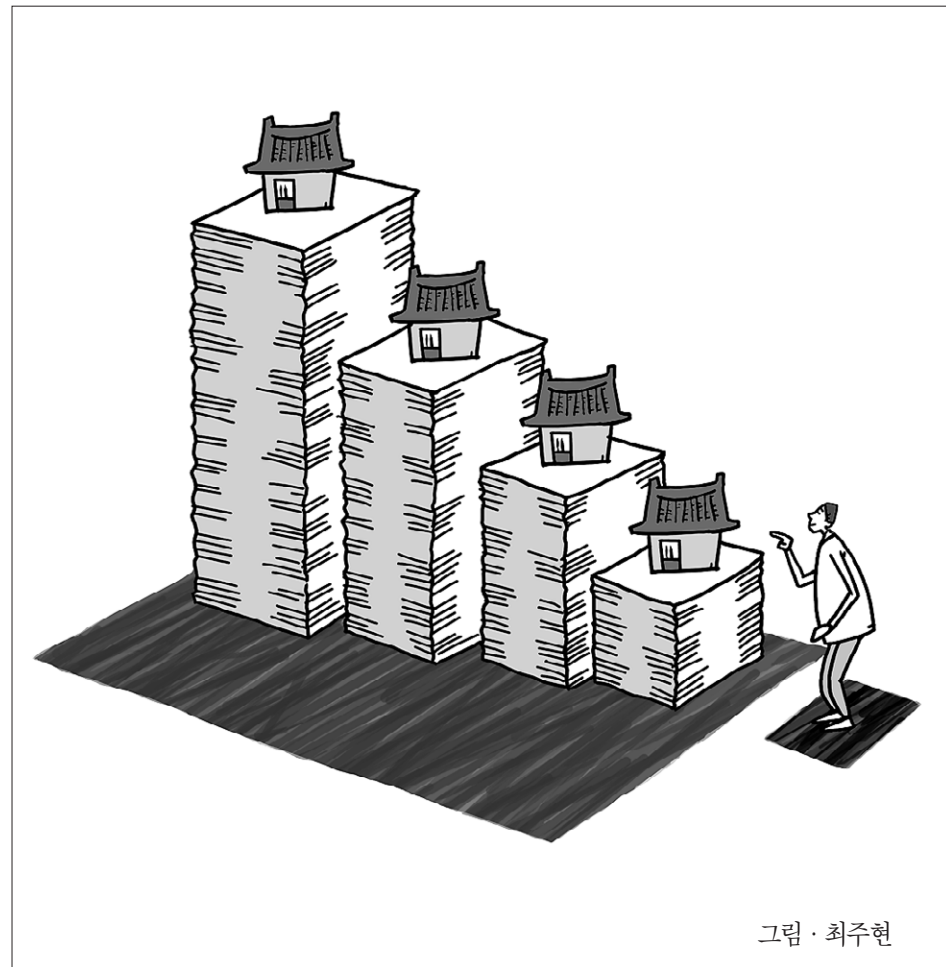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욕하고 때리고, 또 말로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죠. 대신에 "어디 가서 자는 데 괴롭지나 않았니? 뭐 굶고 다니지는 않았니?"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 주고 안으로 관(觀)해야 뿌리가 뿌리끼리 통하는 거죠. 뿌리와 뿌리끼리 통하면은 그건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들어오는 거지, 마음이 나가고 싶으니까 나간 거거든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고요, 저도 나를 죽여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지금 한 찰나 생각을 해 보시오. 죽으러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허허하... 죽으러 가고 있다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양 손을 서로 굴러 보이며) 빙글빙글 돌아서 그



## 수행의 결실 '지묵스님 전집'

깊이 있는 내용과 함께 독특한 개성과 진솔함, 해박한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는, 문상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듯 거침이 없는 지묵스님

지묵스님은 수행정진 틈틈이 글쓰기를 하고 수련회와 방송을 통해 불법의 생활화와 참선을 강조해 온 까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원願 때문일 것입니다.

<지묵스님 전집>의 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알기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지묵스님의 뜻이 더욱 드러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 행복한 삶과 정토사회 이루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리며 마음모아 <지묵스님 전집>을 엮어내는 바입니다.

- 01 죽비 깎는 아침 02 인도순례기 나마스테 03 봉주르, 길상입니다 04 달마와 혜능 05 초발심자경문 강설
- 06 육도단경 강설 07 산승일기 08 날마다 좋은 날 09 노스님의 젊음 10 비온 뒤에 무성한 조롱박 넝쿨